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를 하라

의가 뭔 지, 죄가 뭔 지를 모르고, 이걸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지옥을 꼭 가게 되어 있죠? 구세주가 죄짓지 말고, 항상 나를 짓이기고 희생생활을 해야 구원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날 예수쟁이들 모양 이해타산이나 하고, 인색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러한 사람은 만날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성경의 순교는 나라는 의식을 죽이는 것

성경에는 순교자가 구원이 있다고 씌어 있죠? 순교가 무엇이 순교인지 알아요? 영적 순교야, 영적 순교! 영적 순교가 바로 마음의 순교! 아시겠어요? 나를 초초로 죽이는 게 그게 순교야. 아시겠어요? 초초로 나를 죽이려면 희생생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까, 마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이라야 말로 그게 의인이에요. 죄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까? 항상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 바로 그게 죄야. 아시겠어요? 성경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이 씌어 있죠? 그게 초초로 나를 죽여라, 이 소리야. 나라는 의식의 마음을 죽이라는 거야. 그게 순교야.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목숨이 끊어지는 게 순교라고 믿고 있지? 스데반이가 돌로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라고 그러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를 항상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라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초초로 해야 돼. 한 번만 해가지고 되지 않아. 마음이 한 번만 해가지고 죽을까요? 초초로 죽여야 돼. 초초로. 아시겠어요?

방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송가 불렀죠? 그 찬송가가 바로 죽고자 하는 자의 찬송가예요. 내일 죽을 지 모레 죽을 지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이 지은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찬송가야, 그게. 아시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는 찬송가! 이게 바로 순교자가 부르는 찬송가야.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 겨울은 어떻게 지낼까?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참구세주인지, 참구세주가 아닌지 하는 걸 똑바로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공산주의만 없앤 거야, 이 사람이 태풍도 못 오게 한 거야? (태풍도 못 오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풍년도 들게 하고 전쟁도 못 일어나게 하고 이런 증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권능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을 하잖아.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깊숙이 해석을 다 해주잖아. 알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모르는 멍텅구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구원선을 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다 태워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것도 멍텅구리야. 아시겠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전도해서 부지런히 들여와도 다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제단 시작할 때 그때부터 부지런히 데려와도, 지금 이 제단이 차고 넘쳐서 10부제 예배가 볼 정도가 되어도, 이 지구 땅 위에 있는 사람 다 못 와요. 부지런히 바다에 빠진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건지는 심정으로 전도를 부지런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기만 살겠다고 만날 혼자만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선을 타고 있는 거야. 구원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물끄러미 있으면 그것 되겠어? 그걸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서 살려줘야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물에 빠진 상태야. 지금 허우적거려. 조금 있으면 이제 죽어. 그런 사람을 빨리 빨리 건져줘야지. 배 위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돼, 물에 빠진 사람들이 건져줘야 돼? 배 위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돼. 아시겠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다시 장대를 던져서 붙잡고 나오라고 소리 질러야 돼, 안 질러야 돼? 장대를 잡으라고 소리를 질러야지? 장대를 잡을 때까지 계속 장대를 잡으라고 말을 해줘야 돼, 말을 안 해줘야 돼? 그래서 장대를 잡으면 잡아당겨서 살려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승리제단 안 나오면 배를 안 탔다가 돼.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방주를 지어가지고 배를 타라고 노아가 외치고 다녔지? 그렇지만 노아 할아버지더러 미친 놈이라고 비웃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배를 기어이 안 탔어. 안 탄 사람들 몽땅 다 수장되어서 바닷속에서 다 고기밥이 되었어. 기가 막힌 거야. 그게 하나의 그림자야.

일반 기독교에서는 노아홍수가 난 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지? 미친 하나님이나 사람을 죽이려고 홍수를 만들지, 그래 안 그래? 홍수를 내린 게 마귀가 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발 부는 것들이 그게 마귀 새끼들이야, 사람 새끼야? 그 당시에 수십 억 인구가 살았어. 그게 다 수장 되어서 죽었어. 아시겠어요?

마귀가 왜 홍수로써 사람을 전부 죽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마귀가 사람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온 줄을 알고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구세주가 나온 줄을 알고 사람을 전부 죽여 버리면 구세주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귀가 전부 그렇게 죽여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유래로 홍수가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모르는 것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야말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요. 왜? 사람이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게 왜 마귀당인 줄 아세요? 예수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역적의 말이 되는 거야.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머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데 왜 구원해.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성경에 씌어 있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바로 당신 자식이라는 뜻이야.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사람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원래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바로 마귀에게 점령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다 죽이는 작전을 수행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죽여 버리는 작전이 기독교야, 아시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빨리 하나님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빨리 되어라 하면, 6천 년간 하나님 되려고 노력했으면 그야말로, 그 동안에 하나님이 된 사람이 수억 만 명이 하나님이 됐을 거야. 아시겠어요? 마귀는 알고 있지만은 그걸 알려주면 전부 사람이 하나님 될까봐 그걸 숨긴 거야. 이 사정을 누가 알겠어! 그래 안 그래?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사이비 종교단체야. 아시겠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지경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밀실 안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여러 번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밀실에 들어갔을 때에 그걸 깨닫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한두어 번 한 게 아니야. 수십 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려면 나를 짓이겨야죠? 나를 위해서 살면 절대 하나님이 안 돼. 그건 꼭 죽어. 십 년 있다가 죽든지, 이십 년 있다가 죽든지, 삼십 년 있다가 죽든지, 오십 년 있다가 죽든지 그러니까 꼭 죽어. 죽으려면 뭐 죽을 짓을 누군 못하나. 죽을 짓을 하면 죽게 되어 있어. 초창기부터 지옥 가는 것도 제 발로 가고 천당 가는 것도 제 발로 간다고 그랬죠? 각 자가 제 발로 가는 거야. 누가 뭐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야.

영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영생하고 말아요. 목표가 영생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영생을 얻으려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어. 내가 이 몸을 팔아서라도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몸을 팔아서라도 영생을 하려고 하겠죠? 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걸 다 바쳐서라도 영생을 이루려고 하겠죠? 영생을 목표 삼으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 영생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움츠려지고 헌금도 안 하고, 십일조도 안 내고, 월정헌금도 안 내고 그러지. 그건 지옥을 향해서 그냥 곧바로 가는 거야.

"너,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이 무엇 있느냐?"하고 심판 날에 꼭 묻겠지? "너, 하나님 위해서 그 동안 한 게 뭐냐?" "너, 영생 얻으려고 왔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어?"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으면 이리 가, 불구덩이로 들어가!" 안 들어가겠지? 밀어 던지는 게 아니라 집어서 던져 버려. 그게 바로 심판날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불경에도 뭐라고 씌어 있느냐 하면 하늘의 조씨가 중생들의 죄를 기록해놨다가 그날에 전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 재판받을 때에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것 봤지? 그것 비슷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심판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현명한 자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날에 심판날에 할 말이 없으면 그걸로 바로 지옥이야. 지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진 걸 몽땅 하나님한테 기울였습니다." "오케이, 구원이야. 너는 영생이다." 그런 식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 줄 알아? 전도해가지고 오는 거야. 전도를 하여 한 명 살려서 데리고 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 한 일주일은 웃어. 기뻐서. 한 명 데리고 오는 걸 보고. 일주일 동안 기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전도야. 아시겠어요?*

2001년 1월 15일 말씀 중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침에는 네 발로, 정오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고대 희랍 비극에서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인간들에게 던진 수수께끼이다. 그 괴물은 그 문제를 못 푼 인간을 다 잡아먹었던 것이다. 마침내 오디푸스가 영특한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 테베시의 왕이 되고 테베시의 왕비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다. 그런데 테베시로 들어오면서 죽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요, 자신과 결혼한 왕비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오디푸스는 죽음의 운명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애꿎은 운명의 덫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아마 이 운명의 덫은 스핑크스보다 더 지독한 괴물이 설치해 놓은 덫일 것이다. 이 수수께끼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의 불가지성(不可知性)과 삶의 신비, 즉 수수께끼는 인간의 지혜로 풀었으나 인생의 수수께끼는 더 고통스럽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끝없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자 하는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깜깜하게 미지의 존재로 남아있는 듯하다. 인간에 대한 물음은 우주선이 하늘을 날고 인간 모습을 한 로봇이 만들어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던져지고 있다. 날카로운 이성의 눈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은 더욱 모호해져 가기만 한다. 놀라운 과학과 가술의 발전을 가져온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 자신을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신을 모르는 앎이란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재는 척도(자)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척도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과연 대상물을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참으로 진정한 앎은 인간의 본질을 아는 지식이 으뜸인 것이다. 지금껏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외부적 대상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을 알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다. 바로 우주에 이 땅위에 홀로 던져진 자신의 존재, 그 대상을 보는 "나", 그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나"는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인간이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인문학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본질 탐구가 학문의 근본

인간이 인간에 대한 연구는 너무 소극적이다. 그 뛰어난 능력과 집중력으로 물질에 관한 물리적 대상 그 자체에만 몰두한다. 물리적 법칙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종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 종교 역시 초월적 대상인 신(神)에만 주목하려 하며, 그 대상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 한다. 예술도 인간 자체보다는 아름다움을 표현 창조하려고 하는 인간활동 또는 그 작품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짙다.

그런데 오늘날,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 진짜 중요한 인간의 본성과 본질에 대한 앎을 망각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인생을 짧고 굵게라며 잘못된 유한한 인생관을 설정해 놓고 진짜 소중한 가치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무지의 감옥에 갇힌 어리석은 인간은 물질을 위해 다른 인간을 죽이고, 또 신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킨다. 과거 역사 속 이데올로기(사상)의 광기는 또 어떠한가? 이데올로기의 허울을 뒤집어쓰면 어떠한 폭력, 살인적 만행도 정의이고 용기인 것으로 둔갑하였다.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는가 말이다.

인간은 극심한 고통에 처할 때,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고 자신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 묻는다. 인간은 인간 자신이 누구의 조종을 받고 사는 지도 모르며, 나 아닌 거짓 나에게 사로잡혀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며 인간을 무참히 죽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물리학은 분명 물체의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지만, 그것은 결국 물체를 바라보는 '인간의 생각 체계'일 뿐이다. 인간이 빠진 상태에서 물체의 객관적 진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핵심이 현대 물리학의 거장인 닐스 보어(N.Bor)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 "물리학의 과제는 자연이 어떻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물리학은 자연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학문은 근본적으로 인간 자신을 아는 데 있다

철학 역시 어떤 사건과 대상에 대한 "인간의 생각 체계"요, 신학도 신에 관한 "인간의 생각 체계"인 것이다. 또한 예술도 "인간의 정신"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인간을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간 없는 물질, 지식, 신, 예술은 그 존재 의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인간이 없으면 이 세계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돼버리고 만다. 그러고 보면 각기 추구하는 방향은 다른 듯 보이나 물리학, 철학, 종교, 예술 등 그 저의는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들은 인간 정신과 감정의 이러저러한 표현일 뿐이다. 예술은 인간의 정신과 감정을 소리나 그림 또는 조각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물리학은 수식이나 도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철학은 그것을 일관된 언어체계로써, 종교는 의례나 제식으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저 유명한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는 이것을 간략하지만 명쾌하게 말한다. "수학은 문학적 상상력을 조직화하는 힘이다." 이 말은 수학과 문학은 같은 것인데, 그 같은 것은 인간 정신을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다. 각기 다양한 학문과 분야는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간 정신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각기 다를 것이라 알았던 물리학, 철학, 종교, 예술 등 모두는 똑같은 인간 정신의 단편을 표현한 인간학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요, "총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이다.

인간 자신에 대한 통찰 없이 물리학, 철학, 종교, 예술을 몰두하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닌 인간의 그림자만을 연구하는 것에 해당된다. 눈에 보이는 물질, 외면적 대상으로 향하고 있는 이성의 눈은 빙산의 일각만 보고 판단하는 단편적 앎에 그친다. 그러한 앎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고를 저해하게 되어 엄청난 "획일적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 결국은 진리와 동떨어진 삶, 허망한 삶으로 종지부를 찍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항상 내면을 향해 있어야 하고, 가슴 저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진실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인간과 세계의 총체적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딴 데서 찾을 수 없고, 바로 인간 자신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